

한 줄기 물이 광활한 농토 축축이

농어촌공, 정읍 낙양취입수문에서 백파 통수식 열어 사계절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으로 안전영농 다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5일 정읍시 낙양취입수문에서 수문을 여는 백파 통수식을 갖고 전북지역 농경지에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기원했다.

특히, '백파제'는 한 줄기 물이 백 갈래로 갈라져 광활한 농토를 적셔준다는 의미로, 물길을 열어 되풀이되던 가뭄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통수식의 시초가 됐다.

김인식 사장은 "4계절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야말로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92년 전 가뭄을 이기고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백파제의 역사를 기억하고 발전시켜,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과학적 물관리 체계를 확충하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청정 농어촌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비전 결의문을 선포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국가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5일 현재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0%로 평년 11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영농기 이후부터 지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물체우기 등 사전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공사는 봄 가뭄에 대비해 87만톤의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목표로 선제적 대응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5일 정읍시 낙양취입수문에서 수문을 여는 백파 통수식을 갖고 전북지역 농경지에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극한 가뭄과 폭우 등 매년 되풀이되고 시기·지역별 저수지 물 채우기, 물길잇기 등 다각적인 수자원 확보를 하고 있다. 강수량 편차가 심해지는 점을 고려해

드넓은 호남평야에 첫 물 공급... 안전영농 기원

농어촌공 동진지사, 백파 통수식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신진균)는 25일 정읍 태인면 낙양리에 있는 낙양동산에서 안전영농을 기원하는 백파 통수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영농을 위한 급수에 돌입했다.

이날 제92회 백파통수식 행사에는 유성열 국회의원, 김중희 국회의원 박준배 김계사장, 이정용 김계능협조합장 등 9명, 농민단체 대표, 유관기관 단체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운영대의원 및 농업인 260명과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살생산과 안전영농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주요행사는 신진균 동진지사장의 2019년 급수계획 보고와 직원대표 수질개선비전 선언문 낭독, 안전영농 기원 떡 컷팅식과 통수문 개문 퍼포먼스 행사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김계시 공무원과 관련 농업인에게 감사패를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직접 수여했다.

신진균 동진지사장은 심심제 총 저수량은 4억6600만톤중 농업용수로 2억5800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저수량은 3억2100만톤이 확보되어, 7월말까지 무강우시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곽노태 기자

합리적인 급·배수 계획으로 물 관리에 만전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풍년기원

2019년도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급수가 시작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는 영농철을 맞아 수리시설을 점검·정비하고 안전한 영농급수를 하기 위하여 통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물 공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4월 24일 11시 장계면 오통저수지에서 운영대의원과 지역농업인,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도 큰 탈 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늘에 기원하는 통수식을 가졌다. 도자문화의 일환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인 통수식은 한해 농

사를 시작할 즈음 풍년의 기원을 담은 제례의식을 거행한 후 겨우내 닫혀있던 수문을 열어 농지로 물을 흘려보내는 기념행사를.

무진장지사는 통수식을 통해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을 일제히 가동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저수지 취수시설 가동상태, 수로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치별로 계획된 용수량이 공급되는지를 점검한다.

신교준 지사장은 "용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급·배수 계획으로 용수가 필요한 180여일 동안 도내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지역밀착형 금융전문가 양성에 '앞장'

전북농협, 2019년 상반기 지역인재 15명 신규 채용

전국 270명 규모 장애인 특별채용은 현재 진행 중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역밀착형 금융전문가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 15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공개 채용은 학력·연령·전공·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하여 채용했다. 채용된 15명의 신규직원은 지난 15일부터 구레와 청주에서 약 7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영업점 현장 근무를 위한 기본 소양과 제반 금융지식을 습득한 후 전북 관내 영업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장근 본부장은 "신규직원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말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글로벌 핵심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2019년 상반기 34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70명 규모의 장애인 특별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채용은 서류전형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인·적성, 면접전형 절차를 걸쳐 5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생명전북총국, 연도대상 다수의 상 수상 '쾌거'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25일 대전 유성구 소재 IOC 호텔에서 열린 2018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15명과 사무소부문 1곳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박종현 상무·최혜경 과장·정승만 계장·이계순 지점장·박양호 지점장·서동경 주임·이해숙 계장·임재석 지점장·김혜원 과장(전주농협), 최진영 과장(대리(장계농협), 정미교 팀장(정읍농협), 이항복 단장(무주농협), 최선희 과장(익산농협), 이서운 계장(상관농협), 김미현 과장(익산농협) 등 15명이

수상했다.

특히, 개인부문 수상 15명 중 9명이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직원으로 전국 최대 배출 농협이었다. 또한, 사무소 부문에서는 상관농협(조합장 이재욱)이 대상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이숙 총국장은 "NH농협생명보험에서는 농업인의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보험 사업추진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을 매년 연도대상을 시상하고 있다"며, "내년 시상식에는 전북에서 더 많은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휴비스가 25일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축구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키움 유니폼' 행사를 가졌다.

'축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휴비스, 조촌초교 축구부 학생들에게 유니폼·지원금 전달

휴비스(대표이사 신유동)는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축구 꿈나무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키움 유니폼'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전주 조촌초등학교에서 조귀순 교장, 지도교사, 휴비스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폼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희망키움 유니폼'은 휴비스의 '희망키움 지원사업' 중 하나로 전북지역 내 초등학교의 축구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북도 내에는 5개 초등학교의 축구팀이 있으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

휴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학교들을 돌아가며,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촌 초등학교는 2015년 이후 2번째 지원을 받는다.

조촌초등학교 조귀순 교장은 "5월 말 전국소년 체전 참가를 앞두고 유니폼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휴비스 현종철 공장장은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축구 국가대표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꾸준히 지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 조촌초등학교는 올해로 100년이 되는 긴 전통을 가진 학교로 축구부는 지난 1997년 창단됐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중 하나로 축구부는 매년 각종 축구리그에서 우승을 이끌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휴비스 전주공장 경영지원팀 정찬모 대리 (063-210-2210, 010-7749-612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